

# 르네상스 시대, 스튜디오(Studio)의 등장과 지식인\*

안재원\*\*

## [초 록]

15세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조선의 집현전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학술 활동을 음미하기 위해, 이 글은 중세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로 전환되고, 르네상스 시대에서 근세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책과 학자와 학자들의 공부 모임과 출판사가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추적했다. 책에 대해서는, 루크레티우스(Lucretius, 기원전 99-55)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De Rerum Natura*)에 얽힌 사연을 소개하였고, 학자에 대해서는 비잔티움 제국(Byzantium Empire, 330-1453)이 몰락하자 피렌체로 망명한 그리스계 철학자 아르귀로폴로스(Argyropoulos, 1415-1487)라는 학자를 소개하였으며, 출판사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베니스에 설립된 알두스 출판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0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 — 한국학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인문학연구원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임.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

주제어: 르네상스, 스튜디오, 루크레티우스, 아르귀로폴로스, 알두스, 집현전  
Renaissance, Studio, Lucretius, Argyropoulos, Aldus, Jiphyeonjeon

사(Aldine Press, 1494년 설립)의 역할과 영향을 살폈다.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15세기 이탈리아에서 활약했던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야기는 서양 역사가 중세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로 전환되고, 르네상스 시대에서 근세 시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책과 학자와 학자들의 공부 모임과 출판사가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또한 거의 동시기에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 위치한 조선의 집현전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학술 활동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책, 학자, 출판사의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겠다. 먼저, 책에 대해서는, 루크레티우스(Lucretius, 기원전 99-55)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De Rerum Natura*)에 얽힌 사연을 소개하겠다. 이어서, 학자에 대해서는, 비잔티움 제국(Byzantium Empire, 330-1453)이 몰락하자 피렌체로 망명한 그리스계 철학자 아르귀로폴로스(Argyropoulos, 1415-1487)라는 학자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마지막으로 출판사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베니스에 설립된 알두스 출판사(Aldine Press, 1494년 설립)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말하겠다. 여기에 15세기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학자들과 조선의 집현전에서 활약한 학자들의 비교하는 이야기를 덧붙이겠다.

## 2.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 얽힌 이야기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가 독일의 풀다(Fulda)에 위치한 수도원의 창고에서 전 발견된 해는 1417년이었다. 이에 대한 그린블랫(Stephen Greenblatt, 1943-)의 말이다.

이것은 세계가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일탈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변화를 일으킨 것은 혁명도, 성문 앞의 무자비한 침입 군도, 미지 대륙의 상륙도 아니었다. 이런 장엄한 사건들의 경우, 역사가와 예술가들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이미지를 제공해왔다.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 로마 약탈, 그리고 배에서 내린 혈벗은 에스파냐 선원들이 신세계에 깃발을 꽂는 장면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사적인 변화의 상징적인 장면들은 현혹적인 이미지에 불과할 수 있다. (중략)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문제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은 한 외딴 장소의 벽 뒤에 처박혀 가만히 숨죽인 채 거의 눈에 띄지도 않게 지나갔다. 어떤 영웅적인 행위도, 이 위대한 변화의 현장을 후세에 증언해 줄 관찰자도 없었다. 천지개벽할 변화의 순간이면 으레 나타나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 날, 상냥하지만 약삭빠르고 기민해 보이는 인상의 한 30대 후반의 덩치가 작은 사내가 한 도서관의 서가를 둘러보았다. 그는 그곳에서 아주 오래된 필사본 하나를 발견하고 꺼내 들었다. 책을 살펴보고 그는 매우 흥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을 필사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했다.)<sup>1)</sup>

“작은 사내”는 포찌오(Poggio Bracciolini, 1380-1459)라는 문헌사냥꾼이었다.<sup>2)</sup> 서간문 작가이고 단편이야기 묶는 재주가 탁월한 작가였지만, 포찌오는 타고난 문헌사냥꾼이었다. 책을 찾아 외국을 자주 방문했다. 방문할 때마다 중요한 성과를 올렸다. 특히 1416년 상갈렌(Sant-Gallen) 수도원에서 그가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Quintilianus, 35-100)의 『수사학 교육』(*Institutiones Oratoriae*) 필사본(*Turicensis 288*)을 발견한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다.<sup>3)</sup> 이어 1417년에 독일의 풀다(Fulda) 수도원에서

1) Stephen Greenblatt (2011), 이해원 옮김(2013), pp. 19-20.

2) Rudolf Pfeiffer (1976), 정기문 옮김(2011), pp. 46-62.

3) 안재원(2006), pp. 792-811.

루크레티우스가 지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필사본(*Laurentianus 35.30*)을 발견한다. 이 필사본은 9세기에 필사된 것인데, 포찌오가 이를 발견한 당시에는 유일본(*codex unicus*)이었다. 이 필사본이 발견되지 못했다면, 루크레티우스의 작품은 서명만 전해졌을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그린블랫의 말처럼, 세계의 역사는 어쩌면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는 계몽주의 시대에 계몽 사상가들에게 중요한 영감과 용기를 부여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뉴턴과 같은 자연과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sup>4)</sup> 중세에서 르네상스 시대로의 전환에는 여러 동력들이 작용했지만, 도서관에 묻혀 있었던 고전 텍스트의 발견이 결정적인 것이었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포찌오가 수도원의 포도주 창고에서 찾아낸 루크레티우스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를 전하는 필사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은 중세 그리스도교를 아주 불편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루크레티우스의 말이다.

인간의 삶이 무거운 종교에 눌러  
모두의 눈앞에서 땅에 비천하게 누워있을 때,  
그 종교는 하늘의 영역으로부터 머리를 보이며  
소름끼치는 모습으로 인간들의 위에 서 있었는데, (중략)  
그리하여 입장이 바뀌어 종교는 발 앞에 던져진 채  
짓밟히고, 승리는 우리를 하늘과 대등하게 하도다.<sup>5)</sup>

“승리는 우리를 하늘과 대등하게 하도다”는 주장에 눈길이 간다. 오만(*hybris*)의 극치이다. “신”(神)을 맨 앞자리에 놓는 서양 중세인에게는 특히나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중세는 물론 르네상

4) Rudolf Pfeiffer (1976), 정기문 옮김(2011), pp. 223-256.

5) 루크레티우스, 강대진 옮김(2012), 제1권, 62-79행.

스 시대에 활약했던 학자들이 루크레티우스를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심지어 추종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신에 대한 루크레티우스의 저 담대한 주장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자연(natura)을 자연 그대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싶어했던, 하지만 교회의 힘에 눌려 있었던 학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였을 것이다. 사실, 루크레티우스가 제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필사본이 발견된 지 대략 300여년이 지난 18세기부터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17세기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의 합리주의 철학에 반기를 들었던 피에르 가상디(Pierre Gassendi, 1592-1655)가 구명하기 노력한 에피쿠루스(Epicurus, 기원전 341-171) 철학의 부활도 한몫 거들었지만,<sup>6)</sup> 루크레티우스의 주장에 감동한 볼테르나 흄스와 같은 계몽 사상가들이 벌인 반(反)종교운동 덕분이었다. 다시, 루크레티우스의 말이다.

정신에 자리잡은 종교에 두려움과 어둠을  
태양의 빛과 낮의 빛나는 햇살이 아니라,  
자연의 관찰과 추론으로 몰아내야 한다.<sup>7)</sup>

그랜블랫이 지적하듯이, 중세에서 르네상스로의 시대 전환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작용과 반작용의 연속이었다. 17세기 피사 대학교의 예수회 소속의 젊은 성직자들의 아침 기도문은 반작용의 한 사례이다.

원자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네.  
세상을 이루는 모든 물체는 그 형태의 아름다움 속에서 빛나니,  
이런 물체들 없이는 세상은 단지 거대한 혼란일 뿐이라.

6) Pierre Gassendi (1647).

7) 루크레티우스, 강대진 옮김(2012), 제1권, 146-148행.

태초에 신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만드신 것이 또 뭘가를 낳으니,  
아무것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유념하라.  
오 데모크리토스여, 당신은 원자로부터 시작해서는 어떤 것도 만  
들지 못하노라.  
원자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고 따라서 원자는 아무것도 아니어라.<sup>8)</sup>

이성과 합리성을 모든 행위의 원리이자 준거로 삼는 서양의 근대  
는 이렇게 시작했다. 요즘이야 이 근대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지만  
말이다.

### 3. 망명자 아르귀로폴로스(Johannes Argyropoulos, 1415-1487) 에 대한 이야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서 집현전이 세워져 왕성하게 학술 활동이  
일어났던 시기에 비잔티움 제국이 몰락하면서 그리스 출신으로 이탈  
리아로 망명한 아르귀로폴로스가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15세  
기 이탈리아의 그리스 철학의 부활을 위해 노력했던 그는 비잔티움  
제국의 사절단의 일원으로 이탈리아에 파견되어 1439년부터 1444년  
까지 피렌체에 머물면서 파두아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sup>9)</sup>  
이 과정에서 라틴어를 배웠고, 1453년에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자  
1456년에 이탈리아로 망명한다. 이때부터 피렌체 공국의 후원을 받아  
“Florentine Studium”<sup>10)</sup>에서 그리스어와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을 가르쳤

8) Stephen Greenblatt (2011), 이혜원 옮김(2013), pp. 313-314.

9) 아르귀로폴로스의 삶에 대해서는 [www.britannica.com](http://www.britannica.com)의 “Argyropoulos” 항목을  
주로 참조하였다.

10) 이곳은 세속의 책들, 즉 서양 고전을 읽고 연구하기 위해서 1321년에 피렌체에  
서 만들어진 곳으로, 1421년에 확장 발전되었고, 나중에 피렌체 대학으로 확장

다.<sup>11)</sup> 그리스 철학과 학문의 부활을 위해서 아르귀로폴로스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를 위해 그리스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했다. 여러 작품 중에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책들을 라틴어로 번역했다. 아르귀로폴로스의 말이다.

반대로 우리 시대에 이탈리아의 학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교육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철학은 무시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사들은 플라톤 철학의 올바른 가르침도 바라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결실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sup>12)</sup>

인용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철학”에는 중세의 교부 철학도 포함되어 있었다. 플라톤 철학의 부활을 알리는 언급도 중요하다. 중세의 두터운 덮개 아래에서 작지만 새로운 생각의 흐름이 등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드에 따르면, 아르귀로폴로스는 이탈리아에서 플라톤 철학을 열심히 가르친 교사였다. 팔렌치아의 알폰소(Alfonso de Palencia)가 1463년 9월 24일에 비스티치의 베스파시아노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이다.

---

되었다. 이 곳을 살루타티는 한 편지(Epist. II 84)에서 “legum et liberalium artium studium”으로 불렀다. Hancock, Lee (2005), *Lorenzo de' Medici: Florence's Great Leader and Patron of the Arts*, Rosen Publishing Group: New York 참조. 한국에 따르면,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도 아르귀로폴로스로부터 그리스어를 배웠다.

11) Arthur M. Field (1988), pp. 107-126

12) Argyropoulos et alii (1542), Praefatio p. a.6, in *Aristotelis Stagiritae Philosophorum Omnium Facile Principis Opera*, Basileae: Contra itaque evenit nostro saeculo, ut in scholis Italiae Aristotelica trada[n]tur, caeterorum philosophia negligetur. E qua occasione id quoque profectum est, ut praeceptores et recta institutio ad Platonis philosophiam desiderant, quibus tamen opus est volenti recto et cum fruge accedere.

[아르귀로폴로스]는 플라톤의 믿음들과 그것들의 비밀들과 비밀스러운 교리를 열심히 드러내었다. 그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을 놀라움에 사로잡혔다.<sup>13)</sup>

하지만, 아르귀로폴로스가 무게 중심을 두고 집중한 분야는 플라톤의 철학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의 번역이었다. 그의 노력은 『범주론』, 『명제론』, 『분석론 후서』, 『자연학』, 『천체론』, 『영혼론』, 『형이상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리고 『정치학』의 라틴어 번역들로 결실이 맺어졌다. 그의 많은 번역과 저술들은 아직도 필사본의 형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그의 라틴어 『범주론』은 1542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출판된 *In Aristotelis stagiritae, Philosophorum monium Facile Principis, opera*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다. [그림 1]은 1542년에 출판된 이 책의 목차이다.<sup>14)</sup>

이 전집을 통해서 유럽의 독자들과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전체를 조감할 수 있게 되었고, 원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집을 통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전집은 중세의 교부학자들이 선별적으로 발췌해서 교육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는 다른, 그리고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코임브라 『범주론』이 보에티우스(Boetius, 477-524)나 피르베케(Moerbeke, 121501286)의 라틴어 번역본<sup>15)</sup>이 아니라 아르귀로폴로스의 번역본을 활용하게 된 배경의 해명으로 직결된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아리스토텔레스 텍스트들을 하나로 모아서 출판된 1542 바젤 전집은 코임브라 대학에서 출판된 아리스토텔레스 총서를 만듦에 있어서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

13) Arthur M. Field (1988), p. 108: Platonis opiniones atque arcana illa et reconditam disciplinam diligenter aperuit non sine magna audientium admiratione.

14) Argyropoulos et alii (1542), *Praefatio*.

15) *Aristoteles Latinus*, ed. L. Minio-Paluelio (1961).

CATALOGVS LIBRORVM ARISTOTELIS, qui in hisce Tribus Tomis continentur.

IN PRIMO TOMO SVNT.

Porphyrij Eisagoge, Seu Communium Quinquouocū Liber, pagina 1.	Analyticon Proteron, Seu Resolutorum Primorū Libri II. pag. 54.
Aristotelis Categoriarū, Seu Prædicamenta, pag. 11.	<i>Severino Boëtio Interprete.</i>
<i>Ioanne Argyropylo Interprete.</i>	Analyticon Hysteron, Seu Resolutorum Postremorū Libri II. pag. 108.
Gilberti Porretani De Sex Principijs Liber Vnus, pag. 26.	<i>Ioanne Argyropylo Interprete.</i>
<i>Hermolao Barbaro Interprete.</i>	Topicorum Libri VIII. pag. 146.
Peri Hermetias, Siue De Interpretatione Libri II. pag. 37.	<i>Antonio Demochare Interprete.</i>
	Elenchorum, Seu De Sophisticis Redargutionibus Libri II. pag. 225.
	<i>Simone Gryneo Interprete.</i>

IN SECUNDO TOMO SVNT.

Physicæ Acroaseos, Seu De Naturali Auscultatione Libri VIII. pag. 1.	Liber Vnus. pag. 306.
De Coelo Libri IIII. pag. 80.	De Communi Animalium Gressu Liber Vnus. pag. 311.
<i>Ioanne Argyropylo Interprete.</i>	De Diuturnitate Et Breuitate Vitæ Liber Vnus. pag. 320.
De Generatione, Et Corruptione Libri II. pag. 131.	De Iuuentute, Et Senectute, Vita Et Obitu Liber Vnus. pag. 324.
Meteoron Libri IIII. pag. 167.	De Spiracione Liber Vnus. pag. 328.
De Anima Libri III. pag. 226.	<i>Petro Alcyonio Interprete.</i>
De Sensu, Et Sensibus Liber Vnus, pagina 274.	De Spiritu Liber Vnus. pag. 338.
De Memoria, Et Reminiscencia Liber Vnus, pag. 286.	<i>Nunc primum Latinus factus.</i>
De Somnio, Et Vigilia Liber Vnus, pagina 292.	De Historia Animalium Libri IX. pagina 351.
De Somnijs, Et Imaginibus Liber Vnus. pag. 297.	De Partibus Animalium, Et earum causis Libri IIII. pag. 476.
De Præfensione Per Somnum Liber Vnus. pag. 301.	De Generatione Animalium Libri V. pagina 625.
De Communi Animalium Motione	Problematum Sectiones XXXVIII. pagina 600.
	<i>Theodoro Gaza Interpret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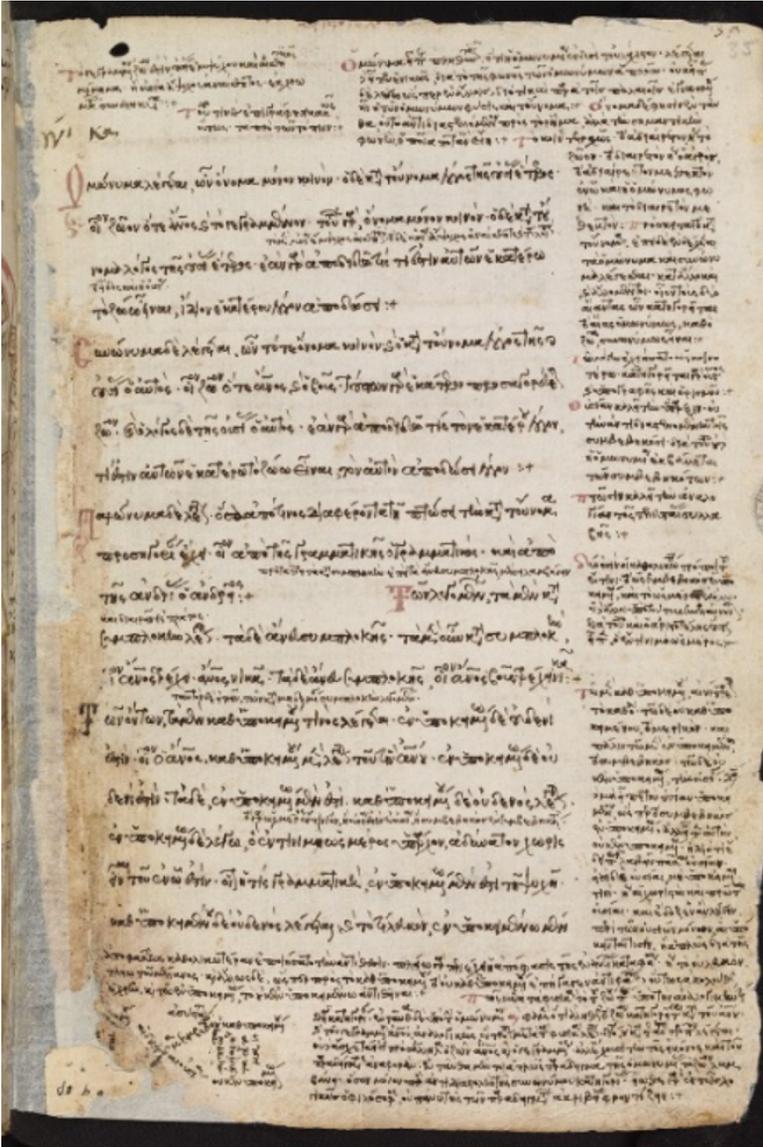
IN TERTIO TOMO SVNT.

Ethicorum Ad Nicomachum Libri X. pag. 1.	Magnorum Moraliū Libri II. pagina 191.
<i>Ioanne Argyropylo Interprete.</i>	<i>Georgio Valla Interprete.</i>
Politicorum Libri VIII. pag. 89.	In Ethica Ad Eudemū Leonardi Arcetini Introductio. pag. 224.
Oeconomicorum Libri II. pag. 185.	Ethicorum ad Eudemum Libri VII. pag. 231.
<i>Leonardo Arcetino Interprete.</i>	

[그림 1] Praefatio

감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의 목차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텍스트들의 번역에 많은 학자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대개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으로 이탈리아로 망명한 그리스 출신의 학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요한네스 아르귀로폴로스(Iohannes Argyropoulos), 헤르모라우스 바르바로스(Hermolaus Barbarus), 세베리누스 보에티우스(Seriverinus Boetius), 안토니우스 데모카리스(Antonius Democharis), 시몬 귀르네우스(Simon Gyreneus), 페트루스 알퀴니우스(Petrus Alcynius), 테오도루스 가자(Theodorus Gaza), 네오나르두스 아레티누스(Leonardus Aretinus), 게오르기우스 발라(Georgius Valla), 야코부스 스타펠렌시스(Iacobus Stapelensis), 알렉산드루스 카밀라르두스(Alexandrus Camilardus), 게오르구스 트라페준티우스(Georgus Trapezuntius), 프란치스쿠스 필엘포(Franciscus Philelpho), 알렉산드루스 파치우스(Alexandrus Paccius), 파트루티우스 플로렌티누스(Patruvius Florentinus), 베사리온 추기경(Cardinal Bessarion), 니콜라우스 레오니쿠스(Niccolaus Leonicus), 야코부스 스케치우스(Iacobus Scheccius), 루드비쿠스 코엘리우스(Ludvicus Coelius)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그리스 원전을 직접 강독하였고, 일반 교양 대중을 위해서 라틴어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리스 철학의 부활 운동이 피치노와 같은 몇 명의 저명 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에서 망명한 학자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sup>16)</sup> 중요한 점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아리스토텔레스 텍스트들이 하나의 전집으로 묶였고, 그리스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했다는 것이다. [그림 2]는 아르귀로폴로스가 라틴어 번역에 사용한 그리스 원전이다.

16) Arthur M. Field (1988), pp. 3-9.



[그림 2] Oxford, Bodleian, Barocci 87 35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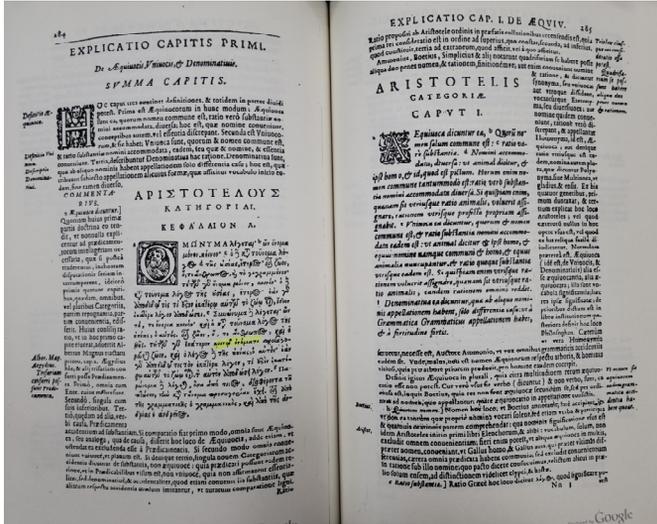
[그림 2]의 필사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의 첫 페이지를 전승한다. 난외의 주석들은 아르귀로폴로스가 강의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록해 둔 것들이다. 철학적인 주석도 있지만 그리스어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그리스어 단어들 쉽게 풀어 놓은 주석도 많다. 이 필사본에 대한 분석이 이 글의 목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지 않겠다. 다만, 아르귀로폴로스가 비잔티움에서 가지고 왔던 그리스어 필사본과 이를 바탕으로 번역한 라틴어 『범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르귀로폴로스가 가져온 필사본과 그의 라틴어 번역이 한 순간에 보수적인 교부 철학자들의 입장과 유럽의 학풍과 문화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결정적으로 유럽의 학자들이 그리스어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그리스어로 직접 읽으려는 욕망과 수요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그리스 원전을 라틴어 번역과 함께 병기한 1607년에 출판된 코임브라 라틴어 『범주론』<sup>17)</sup>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중요한 점은, 그리스 원전과 라틴어 번역이 아르귀로폴로스의 것들이라는 점이며 이는 [그림 3]과 같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회 신부였던 푸르타도가 17세기 초반에 이지조의 도움을 받아서 한자로 번역한 『명리탐』이 저본으로 삼은 텍스트는 1606년에 포르투갈 코임브라 대학에서 출판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총서에 포함된 『범주론』라는 것이다.<sup>18)</sup> 중요한 점은, 코임브라 『범주론』이 예수회 신부들이 번역한 텍스트가 아니라 아르귀로폴로스가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힘입어 번역한 라틴어 『범주론』이 었다는 사실이다. [그림 4]는 『명리탐』의 첫 페이지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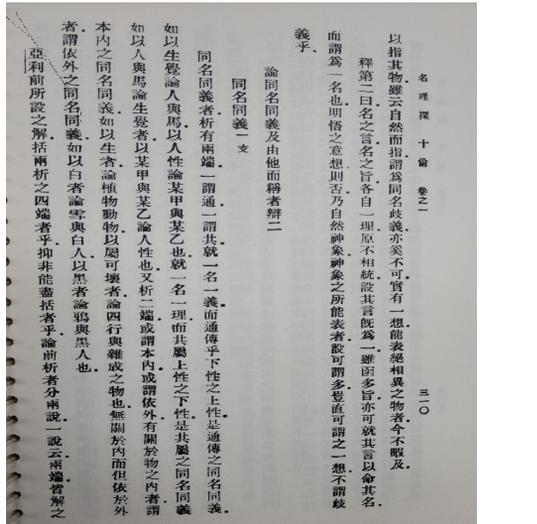
17) *Commentarii Collegi Conimbricensis E Societate Iusu In Universam Dialecticam Aristotelis Satagita* (1607).

18) 김기훈(2020), pp. 79-107 참조.

19) 『名理探』, 傅汎際 譯義. 李志藻 達辭(1631).



[그림 3] Explicatio Capitis Primi, pp. 284-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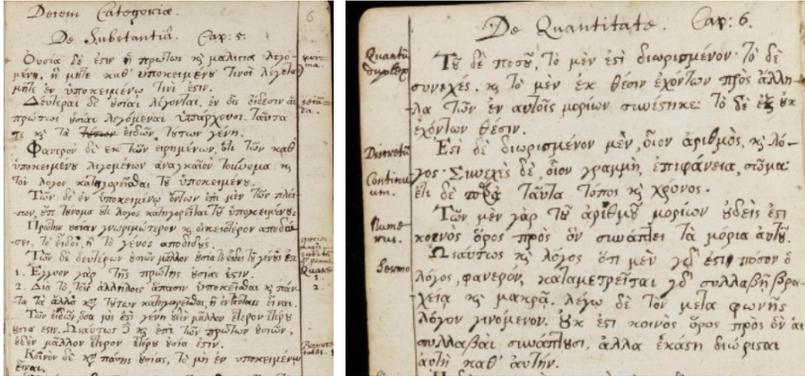
[그림 4] 『명리탐』, p. 310

물론 자신의 라틴어 번역이 한문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아르귀로 폴로스는 당연히 몰랐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사상이 이렇게 필사와 번역을 통해서 유럽을 넘어서 동양에도 전해졌다는 점은 예사 사건은 아닐 것이다. 비록 작은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명말청초(明末清初)에 예수회 신부들이 주도한 서양어에서 한문으로의 번역들이 동양의 언어들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이다.<sup>20)</sup> 이 사례는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인들이 서양 고대의 회귀를 목표로했지만, 우연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동양 근대로도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아르귀로폴로스의 영향사의 추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는 뉴턴(Isaac Newton, 1643-1727)이다. [그림 5]는 뉴턴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의 ‘실체’와 ‘양’ 범주에 대한 것을 노트에 필사한 것이다.<sup>21)</sup>

엄밀히 판독해 보아야 하겠지만, 뉴턴이 필사한 『범주론』의 저본은 아르귀로폴로스가 이탈리아로 가져온 필사본으로 추정된다. 뉴턴의 필사본에 보이는 전승 오류들과 문장의 통사 배열이 아르귀로폴로스의 필사본과 일치하고,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소개한 아르귀로폴로스의 필사본이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 소장된 것이기 때문이다. 뉴턴의 필사본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그리스 원전을 통해서 읽고 공부하려는 욕구와 수요는 갈수록 커져갔으며, 뉴턴이 활약했던 17~18세기에는 바야흐로 유럽의 지성이 중세 교회의 지

20) 이에 관해서는 서울대 서양고전학연구소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동양 수용사” 연구팀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물들도 출판되고 있는 중이다. 엄정삼(2016), pp. 129-169 참조.

21) 이 필사본은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1661년에서 166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2012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디지털 도서관은 이를 디지털 정본으로 만들어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주소는 <https://cudl.lib.cam.ac.uk/view/MS-ADD-03996/179>이다. 이 필사본(MS. Add. 3996)은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림 5] 실체(좌), 양(우)

배로부터 상당 정도 벗어나 있음을, 즉 완전히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독자성을 확보했음을 잘 보여준다.<sup>22)</sup> 이런 노력을 통해서 중세에서 르네상스의 학문 운동은 고대로 가지 않았고, 근세로 나아갔다. 뉴턴이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을 직접 베끼면서 공부할 수 있기까지는 대략 250여년이 흘러야 했다.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비잔티움에서 망명한 그리스 출신의 학자들의 활약은 르네상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더 나아가 그리스 철학에 대한 논의와 연구의 성격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잔티움에서 망명한 학자들, 특히 아르퀴로폴로스가 피렌체와 로마에서 양성한 제자들의 공로가 컸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림 6]은 이런 아르퀴로폴로스의 공로를 기리는 그림으로 장식된 필사본의 표지이다.

머리에 씌운 왕관이 인상적이다. 아르퀴로폴로스를 학문의 사표로 추앙했던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필사본에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22) Rudolf Pfeiffer (1976), 정기문 옮김(2011), pp. 223-256.



[그림 6] Oxford, Bodleian, Barocci 87 33v

Ὁ Ἀργυρόπουλος καὶ διδάσκει Ἀντόνιον Προπουλίανον καὶ Μαρκὸν Πρόπουλον ὁμοίως καὶ Παναργέτον Ἰωάννην ἱατρὸν καὶ Ἄλειον Δημήτρων καὶ Ἀγνίωνα τὸν τοῦ Μόσχου καὶ Βεδνὰν τὸν τοῦ Προτεμαστέως — Ἱατρὸν ἐν τῷ τοῦ Κειξενόιτι. Ἰωάννης διδάσκαλος ὁ Ἀργυρόπουλος.

(아르귀로폴로스는 안토니우스 프로폴리아누스아스와 마르쿠스 프로플루스와 마찬가지로 의사 판아르케투스 요안네스와 알레오스 데메트로스와 모스크의 아그니온과 프로테마스태스의 베드나와 케익세논의 의사를 가르쳤다. 요안네스 아르귀로폴로스는 가르친다.)

아르귀로폴로스가 피렌체로 망명해 와서 가르친 사람들에게는 대표적으로 메디치 가문의 피에트로(Pietro)와 로렌초(Lorenzo)와 이탈리아의 학문과 문화 운동을 주도했던 안젤로 폴리치아노(Angelo Politiano)와 독일 인문주의의 선구자인 요한네스 로이클린(Johannes Reuchlin)과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sup>23</sup>를 꼽을 수 있다. 다음은 아르귀로폴로스의 『범주론』 책을 읽고 혹은 강의를 듣고서 폴리치아노가 정리한 글이다.

In eadem Aristotelis Categorias, Angeli Politiani Argumentum.

Ecce autem magnus ille Peripateticorum princeps prima nobis rerum genera proponit, quae praedicamenta dicimus. Sed Aequivoca prius esse docet, quibus idem nomen, ratio non eadem. Nam si ratio quoque sit eadem, dici Univoca. Sicuti etiam Denominativa, quae ab origine ipsa, qua producuntur, solo differant casu. Dicitur quaedam iunctim quaedam separatim.

아리스토텔레스의 같은 책 『범주론』에 대한 안젤로 폴리치아누스의 요약.

저 소요학파의 시조는 우리가 술어들이라고 부르는 사물들의 첫 종류들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런데 이름은 같지만 의미는 다른 동명이의(同名異意)를 먼저 가르친다. 의미도 같은 것은 동명동의(同名同意)로 불린다. 또한 만들어지는 기원 자체와는 단지 격에서만 다른 것은 파생(派生)이라 불린다. 말 가운데에 어떤 것은 결합하고 어떤 것은 분리된다.

40세에 요절한 폴리치아노(Angelo Politiano, 1454-1494)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은 학자로 15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는다. 보티첼리의 『봄』(*La Primavera*)은 그의 『회전목마의 노래』(*Stanze per la Giostra*, 1476)를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

보티첼리의 그림은 이탈리아의 회화가 중세의 무거움에서 벗어나 르네상스의 즐거움을 담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세속 문학과 예술이 결합하는 사례로 “인문주의”(humanitas)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였다. 폴리치아노는 로렌조 발라(Lorenzo Valla)와 문체 논쟁을 벌인

23) Vassilleiou Fotis and Saribalidou Barbara (2006).



[그림 7]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소장

것으로도 유명한 학자였다.<sup>24)</sup> 15세기 이탈리아에서는 교리문답적이고 형식 논리에 갇힌 중세적 글쓰기 형식에 반기를 들고 인문주의적 가치를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한 새로운 문체 운동이 일어났다. 이 새로운 문체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키케로의 문체였다. 키케로 문체를 르네상스에 소개한 사람은 로렌조 발라였다. 하지만 감정 개입이 심하고, 강건 만연체인 키케로의 문체는 당시 세 가지 점에서 널리 유행되지 못한다. 첫째는 자유와 비판을 담는데 봉사했던 키케로 문체 뒤에 숨어 있는 정신과 그 영향력은 중세의 봉건 구조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암암리에 성직자들의 견제를 받았다. 둘째는 고전 라틴어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독자층을 확보하지 못했다. 셋째는 고전 라틴어와 중세 라틴어 사이에 생

24) 안재원(2019), pp. 43-71.

겨난 차이가 키케로 주의를 널리 확산시키지 못하게 했던 근거였다. 이러한 키케로의 문체의 난점을 폴리티아노는 잘 알고 있었고, 소위 키케로 문체 모방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는 키케로가 아니기 때문에<sup>25)</sup>” 라는 말로 키케로 문체를 거부한다. 하지만 키케로를 ‘모방하는 문체’를 거부한 것이지, 키케로의 글쓰기 방법론 혹은 말하기 방법론 자체가 거부된 것은 아니다. 이 방법론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 중 하나는 양방향으로 사고하고 말하기(*in utramque partem dicere*)이고, 다른 하나는 논증 구조(*argumentatio*)에 기반한 글쓰기였다. 전자는 소위 토론 이론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후자는 글의 체계를 짜고 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학문 세계에서 도 여전히 유효한 학문 방법론이었다. 어쩌면 현대 서구 대학에서 통용되는 학문적 글쓰기 방법이 확립된 것은 르네상스 시기라 하겠다.

아르귀로폴로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코임브라 텍스트와 뉴턴의 필사본과 폴리치아노와 보티첼리의 사례는 비잔티움에서 망명한 한 학자의 활동이 문명사적인 의미에서 시대 전환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특정의 학문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방식은 물론 문화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 4. 알두스(Aldus) 출판사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알두스 마누티우스(*Aldus Manutius, 1452-1515*)라는 출판가에 대한 이야기다.<sup>26)</sup> 로마 남쪽 바씨아노(*Bassiano*)에서 태어난 알두스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정식으로 배운 학자였다. 피치노의 영향을 받아

25) R. Pfeiffer (1976) p. 43: non enim sum Cic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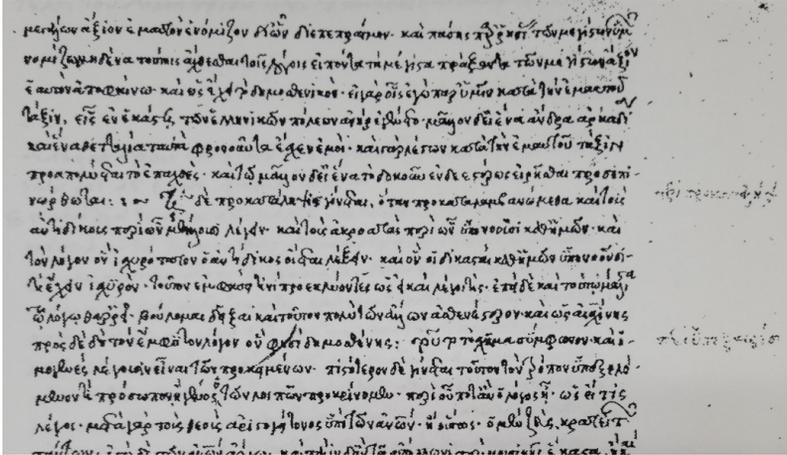
26) Martin Lowry (1979), 심정훈 옮김(2020).

서 플라톤의 숭배자였던 알두스는 구아리니(Battista Guarni, 1435-1505)에게서 그리스어와 그리스 학문을 배웠다. 알두스는 1480년에 페라라(Ferrara)라는 지역에서 지역 유지들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외 교사로 활동하다가 1489년에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그는 교육자의 삶을 포기하고 출판업자로 인생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그는 페라라에서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던 베니스로 간다. 그곳에서 토렌사노(Andrea Torrensano, 1451-1529)를 만난다. 토렌사노는 당시 베니스에서 향료업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사람으로, 이후 알두스의 출판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사실 토렌사노는 알두스의 장인이었다. 알두스가 베니스에서 출판사를 세운 해는 1493년이였다. 출판사의 기치는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였다. 이 출판사의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양 고전의 초판본(editio princeps)들이었다.<sup>27)</sup>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서양 고전 문헌들의 비판 정본을 위한 저본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책을 통해서 특정 소수에게 국한되었던 지식들이 대중에게 널리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이 계기를 통해서 서부 유럽에는 정신의 새로운 대륙이 형성되기 시작된다. 알두스의 성공은 크게 네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문헌 편집을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예컨대 1509년에 출판된 *Rhetores Graeci* (『그리스의 수사학자들』) 경우, 수사학자인 무수루스(Musurus)에게 맡겼다.

이 필사본은 출판을 위해서 무수루스가 활자공을 위해서 그리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텍스트를 바로 잡은 교정보이다.<sup>28)</sup> 알두스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책임-편집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통해 가능한 한 오류를 줄였다. 이렇게 출판된 책들은 독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이를 통해서 알두스 출판사는 당시 지식인들 그리고 특히 신부들의 문헌 편집에서 생겨나는 오류 때문에 들어야만 했던 출

27) 안재원(2019), pp. 43-71.

28) Jaewon Ahn (2004), pp. XXI-XXIII.



[그림 8] Par. Gr. Cod. 1656 f 79v

판 서적에 대한 비난과 오해를 극복할 수 있었다. 구텐베르크가 사업에 실패하게 된 것도 실은 출판본의 오류들에 대한 비난 때문이었다.<sup>29)</sup> 필사의 경우, 성경 말씀이 잘못 필사된 경우, 한 번의 오류만 생겨나지만, 책의 경우 한 번의 실수로 3000개의 오류가 생겨난다. 이 문제를 알 두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를 위해 1500년에 자신의 집에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초대한다. 이렇게 초대된 사람들은 “그리스를 사랑하는 동지”(sodalitas Φιλελλήνων)를 결성한다.<sup>30)</sup> 이 연구회에 모인 사람들의 면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암스테르담의 에라스무스, 프랑스 왕립학사인 귀욤 뷰데(Guillaume Bude, 1468-1540) 등을 들 수 있다. 뷰데는 나중에 부엉이 로고의 출판사인 뷰데 출판사를 파리에 세운다. 둘째, 책값의 인하였다. 그는 당시 초등학교 교사 한 달 급료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가격에 책을 판매하였다. 박리다매 판매 전략인

29) Sebastiano Timpanaro (1963), pp. 1-12.

30) Rudolf Pfeiffer (1976), 정기문 옮김(2011), pp.80-112.

데, 이 전략은 사업적으로 적중했고, 출판사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알두스는 아울러 책의 제작비용을 낮추고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크기를 줄였다. 이 크기가 바로 소위 펍권판 시리즈 규모의 크기다. 누구나 호주머니에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셋째, 향료가 팔리는 곳이면 책이 팔렸다. 알두스는 책의 수요처를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 전략을 세웠다. 사업적으로 성공했지만 줄부의 소리를 듣던 신흥 상업 세력들의 지적 욕구는 대단했다. 능력에 대비해 볼 때, 사람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언제나 불만이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책의 출현을 가장 반기었던 세력이 소위 나중에 부르주아지(Bourgeoisie)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넷째, 알두스는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 자체를 구입하도록, 그러니까 책 자체가 상품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책을 읽기에 편하게 도와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책을 한 번 보면 사지 않았을 수 없도록 만들자는 전략이였다. 이를 위해서 그는 읽기 쉬운 글자체를 개발하는데, 이 때 개발한 글자체가 소위 이탤릭체였다. [그림 9]와 같다.

물론, 알두스가 최초의 출판업자는 아니었다. 최초의 출판업자는 독일인이었다. 요한네스(Johannes)였고, 그가 출판소를 차린 곳은 마인츠 지역의 스파이어를 조그만 동네였다. 아울러 그리스어 폰트를 처음 개발한 사람은 프랑스인 니콜라스 엔손(Nicholas Jenson, 1402-1480)이었다. 중요한 점은 알두스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갔다는 점이다. 블루 오션을 증명한 거의 최초의 CEO였다. 그러나 사업가로서 알두스의 이런 능력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근본적으로 인문학에 대한 열정(studia humanitatis), 책에 대한 사랑(philobiblia) 혹은 문헌에 대한 사랑(philologia)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사업적으로 그가 아무리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수많은 학자들이 그에게 모여 들지



[그림 9] *Inferno*, p. 1, 1502년<sup>31)</sup>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은,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알두스 출판사를 기점으로 유럽은 이제 새로운 정신적 대륙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sup>32)</sup> 또 다른 알두스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베아투스 레나누스(Beatus Rhenanus, 1485-1547)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인강이 발원하는 곳에서 태어났다 해서 레나누스라 불리는 그는 프랑스의 파리에서 왕립학사로 활약한다. 말년에 고향 스트라스부르그로 돌아가서 많은 문헌들을 편집하고, 다른 한편으로 많은 학자들과 교류를 나눈다. 이 교류 범위에 속하는 지역

31) Dante Alighieri (1308-1321).

32) Rudolf Pfeiffer (1976), 정기문 옮김(2011), pp. 157-223.

이 독일의 프라이부르그, 스위스의 바젤, 상갈렌, 현재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 지역이다. 이곳은 모두 유럽 남부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는 인문학의 중심지가 이탈리아가 아니라 알프스를 넘어서 유럽의 심장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로 요한네스 로이클린(Johannes Reuchlin, 1455-1522)과 필립 멜란크톤(Philipp Melancton, 1497-1560)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에라스무스와 함께 유럽 북부의 인문학을 주도한 학자들이다. 이들의 활동과 교류가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 편집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 때문이다. 특히 멜란크톤은 비텐베르크에서 1518년에 대학을 다녔는데, 이곳에서 루터를 만난다. 이 만남은 이후 성서 해석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이제 문헌학이 교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준다.

하지만, 알두스 출판사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구텐베르크(Gutenberg, 1400-1468)의 인쇄기 발명 덕분이었다.<sup>33)</sup> 15 세기에 인쇄술의 발명은 서양 문화에 혹은 인류사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는 출판 혁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인쇄술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특성으로 하는 산업화의 최초 모델 역할을 했으며, 책의 보급은 고립 단위로 단절된 하위 문명권과 지역들을 묶어 내었다. 인쇄소가 있는 곳에 대학이 세워지고, 연구가 진행되어 책으로 엮어 전파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삶의 양태가,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 산업화와 시장 경제가, 문화적으로 개인의 발견이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 시민 사회가 설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발전의 방법론

33) Stephan Füssel (2000) 참조.

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 인쇄술과 책이었다. 책과 인쇄술이 서양 근대의 단초가 되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서양 역사가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전환된 데에는 책과 학자들의 노력이 컸다. 물론 르네상스 시대 학자들은 그리스와 로마로 돌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서양 역사는 서양 고대로 회귀하지 않고, 근세와 현대로 나아갔다. 여기에는 인쇄술과 책이라는 기술과 매체가 가지고 있는 대중으로의 확장성이 결정적이었다.

##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15세기 유라시아의 서쪽, 이탈리아에서 벌어졌던 정치적으로는 작은 것들이지만 학술적으로 나름 의미가 있는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같은 시기 유라시아의 동쪽, 조선에서도 학술적인 관점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다. 1439년에 구텐베르크가 독일의 스파이어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금속 활자를 만들었던 것보다도, 더 이른 시기인 1420년에 세종은 주자소를 세워서 경자자(庚子字)를 만들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나 세종의 경자자도 갖은 비판을 들어야 했다. 세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443년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만들어 1446년에 반포했다. “어린 百姓”으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말이다. 단테가 1321년에 이탈리아 말로 완성한 『신곡』(*La Divina Comedia*)을 알두스가 금속활자를 이용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이탈리아는 물론 전 유럽의 독자들에게 판매했다. 1502년이였다. 중세에서 르네상스로의 전환은 이렇게 소수의 학자들의 사유와 통찰이 대중에게 확산되면서 문명 전환의 성격을 띠고 이뤄졌다. 폴리치아노가 이탈리아 말로 쓴 『회전목마의 노래』(*Stanze per la Giostra*, 1476)는 보티첼리의 회화로 이어져 대중의 가슴에 봄을

심어주었다. 세종도 박연(朴淵, 1378-1458)과 같은 음악가를 등용해 음악을 정비했다. 『칠정산』(七政算) 내외편을 편찬하여 천문학과 역법도 개선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편찬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 국가가 독자적인 문명 단위로 작동하기 위한 학술적으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곳이 집현전이라는 학술 제도이자 연구 공간이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세종과 집현전의 성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해야 할지를 말이다. 과연, 그 성과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학술 운동이 추동했던 문명 전환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말이다. 우선, 세종과 집현전의 학자들이 불교 문명에서 유교 문명으로의 전환에 요청되는 삶의 방식(modus vivendi)에 요청되는 기본 토대를 정비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정비를 통해서 조선이 중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요컨대, 르네상스 운동이 유럽을 중세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전환시켰던 변화의 움직임은 조선의 역사에서는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집현전의 학술 운동이 세종이라는 탁월한 군주의 지도와 관심 덕분에 유지되었던 특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군주 중심의 통치 체계를 중시했던 유교의 정치사상도 한 몫 크게 거두었을 것이다. 또한 학술을 바라보는 시각도 무시 못 할 것이다. 즉, 학문이 정치의 수단, 즉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과 학문 자체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수행된 지적 활동으로 보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집현전의 학술을 지적인 호기심을 원동력과 추동력으로 삼는 학술 운동으로 과연 볼 수 있었을까? 물론, 세종과 집현전의 학자들의 학술에 대한 사랑과 백성에 대한 어진 마음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순수하게 지적인 호기심의 중요성을 학술의 기본 원리로 삼고, 이를 학술 활동의 추기(樞機)로 삼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적어도, 르네상스 시대에 학술 운동을 주도했던 학자들처럼, 정치나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학문이 학문 자체의 전통으로 이어져 하나의 문명의 기

제로 작용할 수 있는 축적의 전통은 안타깝게도 집현전을 쫓아왔던 당대의 학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집현전에 참여했던 학자들 거의 대부분은 나중에 정치적으로 거물이 되었거나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희생되었다. 집현전에서 활약한 학자들 가운데에서 순수한 지적인 호기심(ad curiositatem!)에서 학술을 위한 학술을 지속한 경우는 과연 몇이나 될까? 당시 시대적인 제약 조건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문과 종교, 학술과 정치의 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집현전의 학술 활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교일치의 전통이 강한 시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순수하게 지적인 호기심을 바탕으로, 즉 실용의 요청을 넘어서는 지평에서 이뤄지는 보편의 성찰과 통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호기심의 여행을 중도에서 마친 경우라 하겠다.

이와 관련된 사족으로, 이 글의 제목을 “르네상스 스튜디오(studio)의 등장과 지식인”으로 잡게 된 이유를 보충하겠다. “스튜디오”(studio)는 “좋아하다”는 의미의 라틴어 “studeo”에서 유래한 이탈리아어다. “좋아한다”는 말은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알고자 노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스튜디오는 호기심을 풀어주는 공간이었다. 요즘은 사진공방으로 통용되지만 말이다. 비록 피렌체 왕실에서 배려해 준 작은 공부 공간이었지만, 아르귀로폴로스는 이 작은 스튜디오에서 그리스 원전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쳤다. 알두스의 출판사가 제공한 비용으로 운영되었던 “그리스를 사랑하는 동지(sodalitas Φιλελληνων)”라는 공부 모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중세 대학과 교회의 교육 기관에 제도적으로 편입되지 못한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모임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공부방에서 일어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 예컨대, 새로운 책을 찾아내었다는 포찌오의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기뻐했고, 이렇게 찾아낸 책을 판독하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믿고 인용할 수 있는

책을 만들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절하게 주석과 주해를 달았다. 번역은 그들의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문 것은 아니었다. 책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평생 안 볼 정도로 거친 논쟁을 벌였다.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서 교육에 치중하자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책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마키아벨리(Machiavelli, 1469-1527)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런 논쟁을 통해서, 그들은 한편으로 고대의 부활을 꿈꾸었지만, 그들이 꿈꾸었던 미래는 고대도 중세도 아닌 근세라는 새로운 세계로 이어졌다. 사랑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이 작은 공부방에서 그들은 그리스어를 배우고, 그리스 원전을 직접 강독하면서, 라틴 번역이 만들어 놓은 오해를 걷어내었다.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에라스무스가 알게 된 것도 알두스의 공부방에서 읽은 그리스어 성경 덕분이었다. 에라스무스가 만든 비판정보는 출판 직후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들어야 했지만,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으로 이어지고, 종교 개혁의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알두스가 출판한 책들은 대중을 겨냥했고, 이 책들을 읽고 똑똑해진 대중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이 목소리는 엘리트 중심의 귀족 사회에서 부르주와지 중심의 시민 사회로의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아르귀로폴로스의 친구이자 맞수였던 피치노의 플라톤 번역은 그리스도교에 눌러 묻혀있던 플라톤의 영혼에 대한 생각을 유럽 대륙에 널리 뿌렸다. 기독교적인 인간관과는 다른 새로운 인간관이 유럽 대륙에 뿌리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지만, 인간이 욕망의 주체이고, 다른 말로 그것이 “자유”(Libertas)라는 고상한 이념의 옷을 입게 된 것도 영혼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곧 인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의 힘 덕분이었다. 이는 소위 “인문주의”로 번역되는 *humanitas* 이념으로 요약된다. 이 이념의 실현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툰 것이 이 작은 공부방이었

다. 하지만, 이 모임과 공부 공간에서 벌어진 논쟁과 다툼은 출판과 대학 교육을 통해서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 다툼에서 뛰어나간 사람들이 벌인 정치 투쟁과 종교 전쟁의 발단도 사실은 이 작은 공부방에서 비롯되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일국의 사건이 아니라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에 걸쳐 일어난 국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에라스무스는 네델란드 사람이었고, 뷔테는 프랑스 사람이었으며, 멜란히톤은 독일 사람이었으며, 아르귀로폴로스는 그리스계의 비잔티움 사람이었다. 작은 공부방에서 소수의 지적 엘리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부는 이탈리아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의 대중 사회로 확산되어 나갔다. 여기에는 이 공부방에서 만든 책들과 읽었던 책들이 인류 보편의 공통적인 이념과 욕망을 담고 전파했다는 점이 한 몫 단단히 했다. 이런 의미에서, “스튜디오”라는 작은 공간은 이른바 보편 지성의 힘을 살리내려는 염원과 희망의 동지였고 등불이었다. 이 등지에서 흘러 퍼진 등불이 만들고 퍼나른 이념이 정초한 세계가 근세였다. 사실, 이 영향 아래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라는 정의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15세기 유럽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학문 활동을 했는지를 몇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같은 15세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의 끝에 위치한 조선의 지식인들의 활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컨대, 르네상스 시대의 스튜디오는 모임의 결성 목적과 이후 이 모임의 목적과 취지가 확산되고 발전하는 과정과 양상이 같은 시기에 설치되어 운영된 집현전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집현전이 국가 기관이었다면, 스튜디오는 사적인 모임이었다. 집현전의 설치 목적 혹은 모임을 결성하게 된 목적에 있어서도 확연하게 달랐다. 전자가 국가 차원에서 요청되는 학문과 문화의 정비에 있었다면, 후자는 중세 교회로부터의 학문의 자유와 서양 고대 문명으로

의 복귀를 위해 노력했다. 단적으로, 한글 창제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이 시도했던 노력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한글 창제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학계에서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한글 창제가 결과적으로는 백성을 위한 것, 나아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었다. 물론, 알두스의 출판 활동이 보여주듯이, 책과 인쇄술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은 소위 민주주의의 원칙에 결과적으로 부합한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가능할까? 집현전의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책들에 어떤 목소리를 담고자 했을까? 이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어떤 노력과 투쟁을 했을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여망과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자신들이 수행했던 학술 작업과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 이념과는 과연 일치했을까? 결정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발견되어 만들어진 서양고대의 책들과 인쇄술이 문명사적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과연 조선의 집현전의 활동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15세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는 조선에 세워진 집현전은 어떤 일을 했고, “집현”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말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지식인들의 목적과 활동은 어느 정도 분명하다. 그것은 고대의 부활 혹은 부흥이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이 자신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집현전에 모인 학자들의 활동이 그들이 남긴 저술에만 국한된 것일까? 달리 묻자면, 그들이 저술과 활동이 역사와 문명에 남기고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이를테면 자신들이 남긴 저술과 작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후계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저술 활동을 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명해야 할까? 단적으로 조선의 15세기를 서양 역사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부를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문명사의 관점에서 한글 창제를 어떤 성격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집현전이 창립된 지 6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훈민정음을 통해서 자신이 그

토록 희망했던 것이 꽃피우고,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세종은 이를 보고 무슨 말을 할까? 어쩌면, 문명사의 관점에서 볼 때 “600년”이라는 기간은 잠깐에 불과한 시간일 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미에서 집현전은 아직도 그곳에서 만들어진 한글을 통해서 살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논 저】

- Ahn, Jaewon (2004), *Alexandri de figuris sententiarum et verborum*, Diss. Goettingen.
- Alighieri, Dante (1308-1321), *Diniva Comedia*, Aldine: Venice.
- Aristoteles Latinus*, ed. L. Minio-Paluelio (1961), Bruges/Paris.
- Argyropoulos et alii (1542), *Aristotelis Stagiritae Philosophorum Omnium Facile Principis Opera*, Basileae.
- Commentarii Collegi Conimbricensis E Societate Iusu In Universam Dialecticam Aristotelis Satagita* (1607), Lugduni.
- Field, Arthur M. (1988), “Ch. 5. The Teaching of Argyropoulos”, *The Origins of the Platonic Academy of Florence*, Princeton Legacy Library.
- Fotis, Vassilleiou and Saribalidou Barbara (2006), “John Argyropoulos, Teacher of Leonardo da Vinci”, *Philosophy Pahtways* 117.
- Füssel, Stephan (2000), *Gutenberg und seine Wirkung*, Insel Verlag: Frankfurt am Main.
- Gassendi, Pierre (1647), *De vita, moribus, et doctrina Epicuri libri octo*, Paris.
- Greenblatt, Stephen (2011), *The Swerve: How The World Became Modern*, Norton: New York; 『1417년, 근대의 탄생: 르네상스와 한 책 사냥꾼 이야기』, 이해원 옮김(2013), 까치.
- Hancock, Lee (2005), *Lorenzo de' Medici: Florence's Great Leader and Patron of the Arts*, Rosen Publishing Group: New York.
- Lowry, Martin (1979), *The World of Aldus Manutius, Business and Scholarship in Renaissance Venice*, Cornell University Press; 『알두스 마누티우스: 세계를 편집한 최초의 출판인』, 김정훈 옮김(2020), 도서출판 길.
- Pfeiffer, Rudolf (1976), *History of Scholarship: 1300-1850*, Clarendon: Oxford; 『인문정신의 역사』, 정기문 옮김, 도서출판 길.
- Timpanaro, Sebastiano (1963), *Die Entstehung der Lachmannschen Methode*, Helmut Buske Verlag: Hamburg. pp. 1-12.

김기훈 (2020), 「아리스토텔레스 문헌 전승과 『명리탐』」, 『교회사학』 17, 수원교회사연구소.

루크레티우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강대진 옮김(2012), 아카넷.  
『名理探』, 傅汎際 譯義. 李志藻 達辭(1631). 臺灣商務印書館.

안재원(2019), 『원천으로 가는 길』, 논형.

\_\_\_\_\_(2006), 「퀸틸리아누스: 고대 수사학의 완성자」, 『서양고대사: 고대 그리스에서 로마 제정시대까지』, 허승일 외 지음, 도서출판 길.

엄정삼(2016), 「『명리탐』에 소개된 서구 논리학의 특성」, 『인간환경미래』 16, pp. 129-169.

www.britannica.com: “Argyropoulos”.

<https://cudl.lib.cam.ac.uk/view/MS-ADD-03996/179>: (MS. Add. 3996).

원고 접수일: 2021년 4월 12일

심사 완료일: 2021년 5월 4일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10일

ABSTRACT

---

The Advent of Studios and Intellectuals in  
the Renaissance

Ahn, Jae-Won\*

As a case study for appreciating and evaluating the academic activities of Jiphyeonjeon (集賢殿) in the Joseon Dynasty, this paper traced the role and contributions of books, scholars, academic circles, and publishers in the transition periods from the Middle Ages to the Renaissance, and from the Renaissance to the Modern era. For books, the paper investigated the transmission history of Lucretius' *De rerum naturis*. As for scholars, the paper introduced Argyropoulos, an emigrée scholar from Byzantium who taught ancient Greek philosophy and translated Aristotle's works into Latin. These are supplemented by a report on Aldus Manutius and his publishing company, which published *editiones principes* for Western classical texts.

---

\*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